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도시 속 ‘길’이 가지고 있는 선의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동 혁

도시 속 ‘길’이 가지고 있는 선의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동 혁

인 준 서

이동혁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길은 도시의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장소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공간을 일컫는 지각적 개념과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의 소재로 쓰이듯 은유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철학적 개념까지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은 일정장소를 향해 이동한 실용적 의미의 동선과 목적을 향해 나간 비유적 표현의 여정에 그려진 이미지로서의 길로 재해석 하고 상징화하였다. 특히 도시 속의 길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감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인이 주로 이동하는 도시 속 공간의 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과 소재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과 표현방법을 활용한, 2013년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품에 반영된 이동한 길을 설명하고 서로 다른 패턴을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업에 나오는 선들은 교차로 지점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길로써, 장소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길들의 형태가 반복되면서 일정하게 패턴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 속에서의 인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챗바퀴 굴러가듯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현대 사회의 획일적인 일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감상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거리의 교차로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선을 그어 도시의 형태와 이동한 길을 단순화·도식화 시켰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서술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우리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길이 어떠한 사회적 현상으로 일

어 났는지와 장소의 차이로 인해 다른 패턴이 생겨난다는 것을 주제로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도시의 길을 자연속의 길과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도시 생활에 나타나는 단순한 패턴의 원인,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을 알아보았다.

특히, 실존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였던 ‘우리가 선택하고 이동하는 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노르웨이의 건축이론가이자 철학자인 노베르그 슐츠(c. norberg schulz)는 공간을 6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선택하여 가는 길은 경험과 정보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슐츠의 분류 중 하나인 ‘실존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작품 형성배경과 표현 방법, 각 작품에 사용된 재료를 설명함으로써 각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서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고 본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작품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길’의 개념	3
2) 도시 생활의 패턴화	4
3) 패턴의 차이가 갖는 의미	7
2. 작품표현 방법	11
1) 작품의 구성: 선 그리고 빛	11
(1) 선의 의미	11
(2) 빛을 통한 작품 구성	14
(3) 재료의 상징	16
2) 부조와 입체의 차이	18
3. 작품분석	20
III. 결론	3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반복되지않는반복, 3000x40x400(mm), 2013	20
【작품 1】 반복되지않는반복,(부분1)	21
【작품 1】 반복되지않는반복,(부분2)	23
【작품 2】 달빛없는길, 3000x50x500(mm), 2013	26
【작품 3】 잠들지않는도시, 3000x2000x6000(mm), 2013	29
【작품 3】 잠들지않는도시, (부분1)	30
【작품 3】 잠들지않는도시, (부분2)	31

I. 서론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변화’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억 속에서 움직이곤 한다.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새로움은 찾아볼 수도 없고, 같은 길을 걸어 하나의 목적지로 향한다. 사람들은 일탈을 꿈꾸고, 새로운 길을 상상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일탈은 쉽지 않다. 나의 자유의지로 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 커다란 ‘인생’그림 속 몇 개 되지 않는 선택지에서의 선택이기에 매일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 도시 생활의 모습은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사람들은 주거지와 업무지역을 왕래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요 업무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거지와 구분의 확연해지고 두 공간을 반복하여 왕래하면서 발생하는 획일적인 행동양식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처럼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도시라는 장소에서, 단순화되고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의 길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패턴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 배경과 작품 표현 기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본인도 도시에 사는 현대인으로서 본인이 느꼈던 도시생활의 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삶이 본

인과 마찬가지로 패턴화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전제로 작품이 형성되었음을 밝히며 이 패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연구하였다. 특히,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인 자연과 비교함으로써 쉬운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 패턴화 되어 있음에도 나타나는 길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설명함과 동시에 길의 의미를 극대화하여 작품이 형성된 배경을 보다 쉽게 설명하였다. 여기에 장소성에 대한 고찰과 이해를 위해 실존주의 개념을 함께 설명하였다.

세 번째, 작품표현 방법을 연구하였다. 우선 본인 작품의 주로 사용된 재료가 갖는 특성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구조와 재료를 통해 어떻게 도시속의 길이 갖는 특성을 극대화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연구하였고, 작품에 나타난 부조와 입체의 차이점을 서술 하였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길'의 개념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일컫는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 또는 동물들이 목표지점으로 가기 위하여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반복적으로 왕래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길'이 생성되었다. 그러다 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방금 언급한 길은 물리적인 개념만을 말하며, 사실 '길'의 개념은 다양하다. '인생의 길'과 같이 누군가가 살아온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도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지면상의 길'이 될 수도, 누군가가 목표지점을 향해 이동하는 과정을 담은 길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언급한, 이동하면서 생성된 길을 다루고자 하였다.

작품의 주제로 길을 선택하였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존하는 인간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움직임, '이동'이다. 인간의 이동과 정착을 통해 최초의 마을과 문화를 형성하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은 감상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 속 길에 집중하자는데 이르렀다.

우선 본인은 본인이 자주 왕래하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을 작품소재로

선정하고,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길을 따라 이동을 하다보면 갈림길 또는 교차로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마다 선택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나 도시의 길은 교차로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차로에서의 선택에 따라 길이 달라지기에,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선을 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을 이어보니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소재로 선택하였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길과 지도상의 길이 상이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온 차이로, 단순히 지도상의 길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선택에 따른 길을 재구성함으로써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감상자로 하여금 한번 더 생각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2) 도시 생활의 패턴화

본인은 작품주제를 결정하기 이전에 본인이 자주 다니는 길, ‘서울’에서의 길과 ‘제주도’에서의 길 중 감상자들과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던 길을 선택해야하는 고민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서울에서의 길을 먼저 소재로 삼았다.

본인의 고향 제주도는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많아 자연의 형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는 곳이다. 굴밭과 돌담이 쪽 이어져 있고 조금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바다와 푸른 숲은 톱톱 막히게 하는 건물만 끝없이 이어진 서울과 다르다. 어느 길을 따라가나 항상 익숙함과 따뜻함, 그리고 포근함 등의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길은 이와 상이하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도록 뺨뺨하게 들어서 있는 건물들로 가득 차 있는 서울은 마치 거대한 요새를 연상시킨다. 인간이 살고자 만들어낸 인공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인 요새와 같은 서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외로움뿐이었다. 본인은 이 감정이 비단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조차 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항상 자연을 갈망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서 왔으며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본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길을 지나가며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간혹 본인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본인은 이러한 서울의 길을 거니는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과 이 감정을 공유하여 단순히 감상자로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롯이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자연의 길과 도시의 길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무리생활을 하며 이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길을 만들고, 건물을 세웠다. 자연스레 생겨난 마을단위의 주거지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도시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것들은 수정되어 나갔다. 도시 속 길에 대한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개념인 자연과의 차이를 함께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자연공간은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환경이요 도시공간은 인간이 만드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전자는 무소부재(無所不在)¹⁾의 환경이고 후자는 의도된 환경 곧 문화적 환경으로, 도시는 바로 자연에 대한 문화이자 문명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의 길은 뭔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시와 뚜렷한 차이를 보

1) 신의 적극적 품성의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음을 이르는 말.

인다. 도시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길, 정해진 길로만 움직이게 되는데, 도심 속 건물들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다. 시골에서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자연 속에서 따라 가는 길이지만 도시에서는 내게 결정권이 없다. 즉, 자연 속 길은 자유로운 성격이 강한 반면에 도시의 길은 계획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자연은 하나하나 고유의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의 모습은 그런 개성보다는 실용적인 모습과 기능을 중요시한 나머지 최소한의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시켜버린 느낌이 든다. 그래서 도시 속 길이 더 획일화되고 단순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계획적이고 단순화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의 차이를 가지고 왔다. 그중 대표적인 특성이 도시 속 사람들의 이동에는 어떠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문명사회가 시작되면서 도시가 업무지와 주거지로 기능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야기된 특성이다.

우리가 거주하는 세계적인 대도시인 서울을 보면, 약 606km²의 작은 면적이지만 2012년 기준으로 약 1,0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1 km²당 17,300명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토 크기에 대비한 인구 집중도이다. 서울의 면적은 전국의 0.6%에 불과하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른다.²⁾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서울은 매우 복잡해지고, 주거지를 구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주거지가 몰린 서울 근교의 수도권이나 베드타운으로 몰리기 시작하였다. 자연스레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의 분리가 시작된 것이다.

2) 오피니언 「프롤로그_시멘트 도시 한가롭게 걸어보기」, 미디어스 2013.07.05 16:26:1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73>

이러한 분리는 현대인의 삶을 더욱 단순하게 만들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이미 정해진 업무 등의 일상을 처리하기 위해 집과 직장 또는 학교라는 두 공간을 반복하여 왕래하게 되었다. 서울 근교에 사는 현대인들은 아침에 서울 근무지로 이동하였다가 저녁에는 서울 외곽에 있는 집으로 이동하며, 정해진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을 매일같이 왕복하는 각자의 ‘하루단위 주기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매일같이 반복되어 움직이고, 이동의 흐름은 패턴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패턴·규칙은 자연 속에서의 삶보다 도시 속에서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난다.

물론 각자 자신의 환경, 직업 등의 차이로 인해 사람마다 다른 길로 구성된 패턴을 가지게 되나, 이는 장소의 차이로 인해 이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것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턴’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활·행동양식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각자가 만들어낸 패턴이 모이면 전체적인 도시의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도시의 패턴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패턴이 영향을 받아 또 다른 패턴을 생성한다. 이런 과정은 무한 반복되어진다.

3) 패턴의 차이가 갖는 의미

우리는 하나의 목표지점을 향해 가면서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가거나, 시장에 들러서 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방법에 따라 다른 길을 만들어낸다. 이 길들은 서로가 다른 장소와 다른 경험들을 했지만 결론은 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다름이 없다. 다만 감상자의 경험과 정보에 따라 이동방법이 정해지고, 길이 선택되어지며 이것이 패턴

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장소임에도 감상자의 선택에 따라 패턴은 약간의 차이를 만들어냄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목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장소에 따른 차이임을 알 수 있다. 패턴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다른 목적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동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논외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연구하는 패턴화된 '길'의 작은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누구나 새로운 공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길을 선택할 때에 환경구조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이후 '경험 또는 그간 습득했던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본인은 감상자들이 익숙한 공간, 주(主)생활지를 전제로 작품을 형성하였고, 이 경우 경험과 정보로 길이 선택되어지기에 실존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르웨이의 건축이론가이자 철학자인 노베르그 슐츠(c. norberg schulz)는 장소의 정의에 앞서 공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간은 ▲육체적인 행위의 실용적인 공간, ▲직접적인 경위로서 지각적인 공간, ▲환경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안정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실존적 공간,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지적 공간, ▲순수한 논리적 관계에 의한 추상적 공간, ▲표현적 또는 예술적 공간으로 공간의 개념을 이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인 작품의 전제가 되는 '실존적 공간'에 대해 슐츠는 실용적 공간과 지각적 공간의 인식을 통한 통합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³⁾ 즉, 실존적 공간은 인간 실존에 근거한 장소의 개념에 인간의 신체의 감각과 지각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인식인 '경험'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정의되고⁴⁾, 인간이 지니는 감각을 통해 형성된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공간과 장소의 의미가 드

3) 노베르그 슐츠 저,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 문화사, 2002, pp8~15

4) 메를로 폰티 저,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p.247

러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실용적인 공간은 인간의 육체가 존재하고 있는 환경으로써,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각적인 공간은 인간이 이동 등의 경험을 통하여 마치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내듯, 주변 환경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지하는 개념으로 추상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두 개념이 합쳐진 실존적 공간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식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길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경험을 통한 지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황적이고 동시적이기 때문에 장소는 인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장소의 의미는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절대적이고 과학적인 객관성을 바탕으로 건축의 단독적이고 완결적인 의미에서 형성되어졌다. 이는 장소를 일상적인 주관적 경험과 분리시키고 객관적인 차원으로 환원시킨다는 의미이며, 장소에 대한 주체의 주관적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의 풍부함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뜻한다. 따라서 장소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주관적 기억과 주변 환경의 통합적 관계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장소의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운동성’이 선제되어야 한다. 운동성은 이동으로부터 정지, 정지로부터 이동을 의미하며 장소의 이동에 따라 각각의 공간에 대해 지각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경험이 쌓인다. 그리고 장소의 이동에는 반드시 시간이 수반되게 되어, 운동성이 ‘시간’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장소는 공간을 이동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방향감을 얻게 되고 시간적 요소가 개입됨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의미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5) 데이비드 하비 저, 구동희·박영민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p265

여기에 시간과 경험을 통해 지각되는 장소는 그 장소를 느끼는 주체인 인간이 개입됨으로써 구체적인 실존적 의미의 장소로 형성된다. ‘주체의 감각’을 통해 인식이 변화되고, 비로소 공간의 요소와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장소의 내재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이에 더해 슬츠는 장소의 외부와 구별되는 내부의 경험을 통한 내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소의 경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외부에서 장소를 바라보기보다는 장소 개념 뒤에 숨겨진 중요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⁶⁾라고 하였다. 이는 단순히 장소가 일차원적인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만나고 결합되는 상호관계 속에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장소가 같음에도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상기 설명한대로 경험과 시간을 통해 인지한 장소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감상자마다 이 패턴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본인이 한 작품에서 다양한 패턴을 작업한 것도 이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오늘 날에는 현대인들은 도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 내에서 각 구성원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호의존하면서, 서로의 패턴에 영향을 받고 자신의 패턴을 수정해가는 과정을 통해 전체 도시의 패턴을 만들어내며 존재할 수 있었다. 인간의 이동은 살아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이동의 멈춤은, 패턴의 멈춤은 불가능하다.

본인은 이러한 도시의 모습을 유기체적인 건물 현상의 반복으로 표현하였다. 건물 개체는 개별성을 갖고 혼돈스럽게 존재하는듯 하지만 도시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개체로서 질서 또는 패턴의 한 요소가 된다.

6)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116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인 인간이 머무는 장소가 지역의 차이를 드러내는 공간적인 요소와 함께 그 위에 적층된 시간적인 요소,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내재된 의미 등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이는 지도상 같은 장소에서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작품에 표현하였다.

2. 작품표현방법

1) 작품의 구성: 선 그리고 빛

(1) 선의 의미

선은 인간의 시각에 따라 어떤 의사나 대상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면서 점차 예술의 기본적인 요소로 전환되어 미술 음악 무용 조각과 건축 등 모든 예술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칸딘스키에 의하면 선은 움직임으로 생기는 점이며 이 움직임은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에 의해 점 자체 내에서 폐쇄된 휴식이 파괴됨으로써 생겨난 것으로서 여기에서 점의 정적인 특성이 동적인 특성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또 움직임이란 개념을 긴장이라는 말로 보충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위 긴장이란 것은 조형요소에 내재하는 힘으로 창조적인 움직임의 한 부분을 의미하며 다른 부분들은 이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향이 된다. 직선은 무한의 운동성을 나타내는 가장 간결한 형태이다. 즉 외부로부터 가해

지는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점을 움직일 경우 실현되는 최초의 형태인 것이다.⁷⁾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사고 안에 존재하며 조형상으로 역학적인 합리성과 시각적인 간결성에 의해 창조된 선으로 강직하고 완고한 심리적 감각을 느끼게 하며 직접적인 것을 상징한다.

‘직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굳건하고 엄정한 것을 암시해주며 적극적이고, 단호하고, 가혹하고, 딱딱하고, 굴복되지 않는 성질을 나타낸다, 또한 직선은 그 굵기에 따라 힘차거나 둔한 느낌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방향에 의해서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선과 공간은 표현과정에서 상호 의존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로서 서로의 존재와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따라서 본인이 조형적 구조물을 구성하는데 있어 선과 공간은 항상 동시에 고려되어지며, 조화로운 구성표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직선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수평선’이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 이 수평선은 인간이 그 위에 서서 움직이고 있는 지평처럼 면이나 선에 해당한다. 수평선은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반듯하게 계속 뻗어 나갈 수 있는 차가움과 편평함이 이 선의 기본적인 울림이며, 이것은 차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수평선에 외적 내적으로 완전히 상반되어 서있는 것은 이 선에 대해서 직각 상태로 위치하고 있는 ‘수직선’인데 이 경우 편평함은 높이로, 차가움은 따뜻함으로 대체되어, 수직선은 무한하고 따뜻한 움직임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이다.

직선의 세 번째 유형은 ‘대각선’이다. 대각선은 동일한 갖을 가지고 양쪽

7) 바실리 칸딘스키 저, 차봉의 역, 「점선면 칸딘스키 예술론 II」, 열화당, 2000, pp.47~48

선으로부터 도식적으로 떨어져 있고, 따라서 이 양쪽 선에 대해서 균일하게 기울어져 있는 데, 이 상태가 바로 대각선의 내적인 울림 즉 찬 것과 따뜻함의 균등한 일체감을 결정한다. 따라서 대각선은 차고 따뜻하며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이다.

‘직각’은 그 크기 상태대로 홀로 고독하게 서 있으며, 다만 그 방향만을 바꾼다. 서로 만나고 있는 직각의 수는 다만 네 개가 있을 뿐이다. 직각들이 꼭지점과 접촉되어 $+$ 자 모양이 생겨나거나 혹은 반대 반향으로 뺏어나는 변들이 접촉됨으로써 직각형의 면이 가장 규칙적인 경우로는 정사각형이 생긴다.

수평, 수직적인 ‘ $+$ 자형’은 따뜻함과 차가움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때문에 직각은 그 때 그 때의 그 방향에 따라 차고 따뜻한 온도나 따뜻하고 찬 온도를 가진다.⁸⁾

본인 작품의 시작은 패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선을 그 교차점을 이용하여 대각선을 그은 후 우리가 이동하는 경로를 구조화 시킨 것이다. 본 작품들은 수평선·수직선·대각선· $+$ 자형까지 다양한 선을 활용하여 따뜻함과 차가움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가로 세로선들로 도시의 구조를 나타냄으로써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의 무색무취였다. 작품의 형태를 도시 건물의 절제된 모습과 각 구역의 획일화된 모습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형태나 감정을 넣기 어려운 ‘선’으로 표현하였기에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칸딘스키의 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패턴을 말함과 동시에 도시의 이면을 보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잘 나타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8) 바실리 칸딘스키 저, 차봉의 역, 「점선면 칸딘스키 예술론 II」, 열화당, 2000, p.60

(2) 빛을 통한 작품 구성

인간의 눈은 사물에 반사된 빛을 인지하여 그 형태와 색깔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빛이 없다면 사물에 대한 인지는 오로지 촉각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를 감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사물뿐만 아니라 장소, 공간에도 적용된다. 빛을 통해 인간은 공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즉 빛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인지할 수 있는 사물과 환경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본인은 건물과 공간을 구성하는 선에 빛을 씌움으로써 빛을 통한 인지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도시 모습은 통일감과 질서감이 있다. 빛을 차별력 있게 배치하면 복잡한 대상의 형상에 통일감과 질서감을 더해준다. 일상적으로 빛은 비실체적인 무엇으로 간주되어 왔다. 빛에 의한 방향성과 긴장의 표현은 하나의 극적인 빛의 효과와 명암에 의한 명도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빛의 극적인 효과는 공간의 잠재적 암시를 활성화 시키며 명암에 의한 연속적인 변화는 공간의 연속을 강조한다. 빛은 사물의 존재를 밝혀주고 사물의 형상 방향 위치 성질 등을 설명하며 사물과 사물의 간격을 느끼게 한다.

작품에서 재료는 물리적 질감에 의해 표현되며 빛은 촉각적이고 가시적인 재료의 질감을 예측 가능하게 하거나 반대로 불가능하게 하는 만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료이다. 재료의 물질성과 빛의 비물질성 특성이 서로 결합하여 질감으로 나타내며 이 순간 빛은 재료의 물성을 강화하여 재료와 빛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재료가 빛을 받아 자신의 속성과 본질을 표현하고 빛은 재료를 통해 그 존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재료의 물질성은 빛의 비물질성과 대립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띤다.

본인은 【작품2】와 【작품3】에서 빛을 활용하였는데, 선의 형태를 띄고 있는 조명은 눈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효과, 즉 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높다. 배열 방식에 따라 공간을 확대 시킬 수 있고, 흐름을 느끼게도 할 수 있다. 실내에서는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며, 흐름과 움직임의 강조한다. 특히 【작품3】에서 면으로서의 조명은 평면형의 광원에서 비치는 빛과 같이 넓은 장소를 균일하게 비춰준다. 확산되는 느낌으로 공간을 넓게 지각하게 하고, 시선을 중심으로 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넓고 조용하다는 인상을 준다.

【작품2】는 【작품1】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작품1】이 시멘트로 길과 건물을 구성한 것과 달리, 【작품2】에서는 빛으로 공간 속의 길과 인간의 이동을 패턴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빛 중에서도 붉은 색의 레이저를 사용하였는데, 아무 표정 없이 그저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저 얇은 선에 불과한 레이저선과 일치하는 듯하다.

【작품3】에서는 백색의 LED를 사용하여 도시 속의 공허함과 억지로 만들어낸 도시의 밝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간이 만들어낸 형광등 등을 통해 도시를 밝히고 살아가고 있어 대표적인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밝은 도시의 밤은 화려함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정도로 외로운 도시인들의 몸부림을 볼 수 있다. 또는 자기 자신을 잃은 채 도시의 부속품이 되어 밤낮없이 일을 하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다.

2) 재료의 상징

본인은 작품을 통해 크게 네 가지의 재료를 활용하였다. 시멘트와 조명, 철, 그리고 레이저이다. 각 재료가 가진 특성은 나름대로 도시의 패턴화를 설명하는데 적절한데, 무엇보다 현대 건축에서 가장 필요한 재료들이며 현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다 변화되어온 조각재료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공장 생산품이나 건축자재로까지 확대 되었다. 특히 산업발전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1960년대를 기점으로 광범위한 공업재료들이 조각에 반영되었다.⁹⁾

문명화된 도시에서 발전한 과학기술에 의해 세워진 건축물은 장식이 배제된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하학적 형태란 복잡한 자연 물리로부터 간결한 형태로의 경향성이 이루어 낸 인공적인 추상형태이며 인간의 이지적인 사고체계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정제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¹⁰⁾

건축물에 종속되었던 조각과 회화는 더 이상 다른 영역에 종속되지 않았다. 건축은 회화와 조각과 같은 타 영역의 예술로부터 그 영역을 확고히 구축하면서도 동시대의 예술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비슷한 장식이 배제된 형태로 그 모습을 나타냈다.

기하형태의 콘크리트 건물의 공간은 새로운 시민의 삶을 보다 쾌적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업무의 기능과 효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는 건축물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9) 윤난지 저, 「현대 조각 읽기」, 한길 아트, 2012, p132

10) 한석우 저, 「입체조형」, 미진사, 1996, p86

구조요소들을 감소시킴으로써 구조적인 경제성을 이루는 합리적 건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구조적 경제성은 형태의 단순함 명료함 감소함을 초래하였고. 이는 주관적 감각을 중요시 하는 아르누보의 반작용으로서 보편타당한 개념의 건축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성적 자연주의는 자연도 이성에 의한 관념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합리주의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

본인의 작품은 딱딱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한 모양과 반복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 도시의 건물들은 규격화 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화 되었으며 이제는 본질적인 것만 충실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질만 남은 도시의 형태는 가장 먼저 골격을 만드는 철로 표현하였다. 작품에서의 철은 앙상하고 뼈대만 있는 우리 사회 모습을 단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로 고려된 재료는 시멘트로서, 회색 시멘트는 18세기부터 인공제조 되었으며 근대에 이르러 대량생산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시멘트는 경제적인 건축재료로써 모더니즘을 상징하는 재료가 되었다.

조명재료인 LED와 레이저, 이 두 재료는 약간 다른 특성과 의미가 있다. 우선 작품을 구성하는 레이저 빛은 밤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가로등이 길을 밝히고 그 라인들이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이다. 어두운 밤의 조명은 도시가 갖는 유일한 매력이다.

레이저 빛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 현대인들은 규칙적인 패턴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레이저 빛은 딱딱하고 절제된 모습을 띄고 있는데, 검은 바탕에 레이저의 선과 교차된 지점만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밤의 도시가 갖는 이면인 인위적인 밝음과 이동의 패턴을 표현하였다.

LED의 경우, 철과 함께 쓰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철을 무채색인 검정색으로 칠함으로써 어둡고 무색무취한 도시를 표현하고, 여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명인 LED로 길을 만듦으로써 우리 현대인의 일상 역시 인위적으로 밝혀져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가로세로선을 적절히 섞어 칸딘스키의 선의 개념을 차용, 도시의 다양한 면을 조명으로서 일부 보여주었다.

3) 부조와 입체의 차이

【작품1】과 【작품3】은 형태면에서 서로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작품1】의 형태는 부조 형식을 띄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지도를 단순화한 형태로, 우리가 이동한 길의 정보를 함축하여 놓은 결과물이다.

【작품1】과 같이 시선이 하늘에서 지면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직접 이동을 하며 대략적인 형태의 지도를 그리던 인간은 인간이 만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채집된 정확한 공간 정보를 가지고 지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편의성을 가져다주면서도 인간이 공간의 부속품이라는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시켜 버렸다. 매일 인간은 작은 공간에서 패턴 이동을 하며 살아가는데 전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역동성이나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개미의 이동을 보고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저 평면에서의 이동에 불과한 우리의 공간과 패턴이동을 부조로 표현함으로써 그 무감정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부조가 다른 시선을 배제하고 오로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나의 시선에 의미를 둔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당장 앞에 있는 건물과 길에만 집중하나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한 의도도 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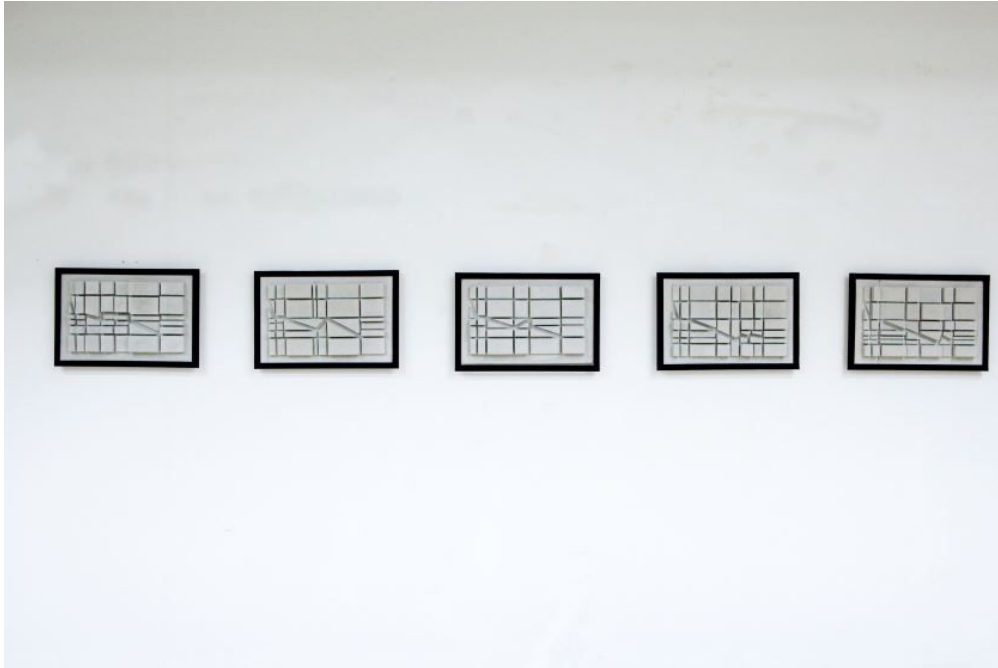
또한 본인의 작품은 딱딱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한 모양과 반복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 도시의 건물들이 규격화·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본질적인 것에만 충실하게 되는 추세를 작품에 녹여냄으로써 도시의 특징을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작품3】은 【작품1】과 다르게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입체작품이다. 시점의 다양성을 줘 【작품1】에서 설명한 도시의 특징에 위배되는 듯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건물을 입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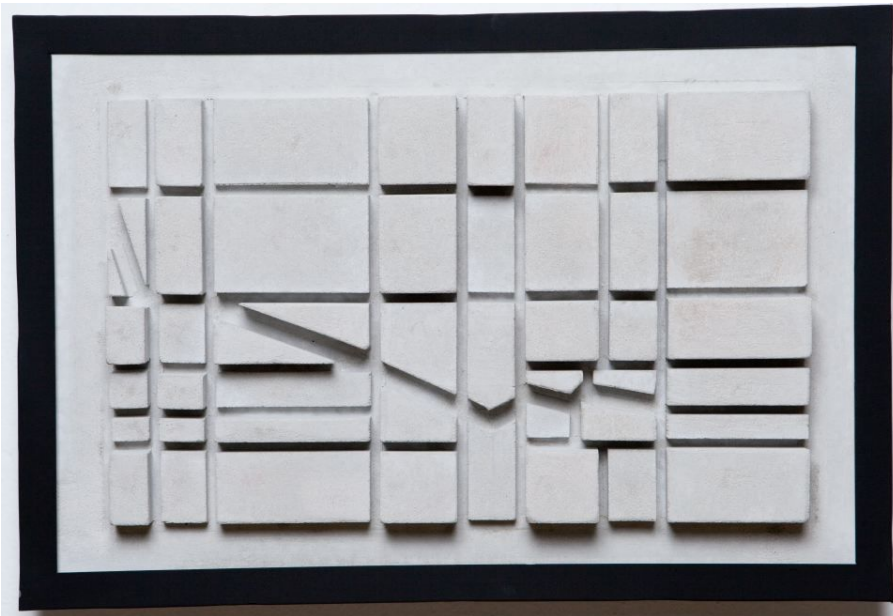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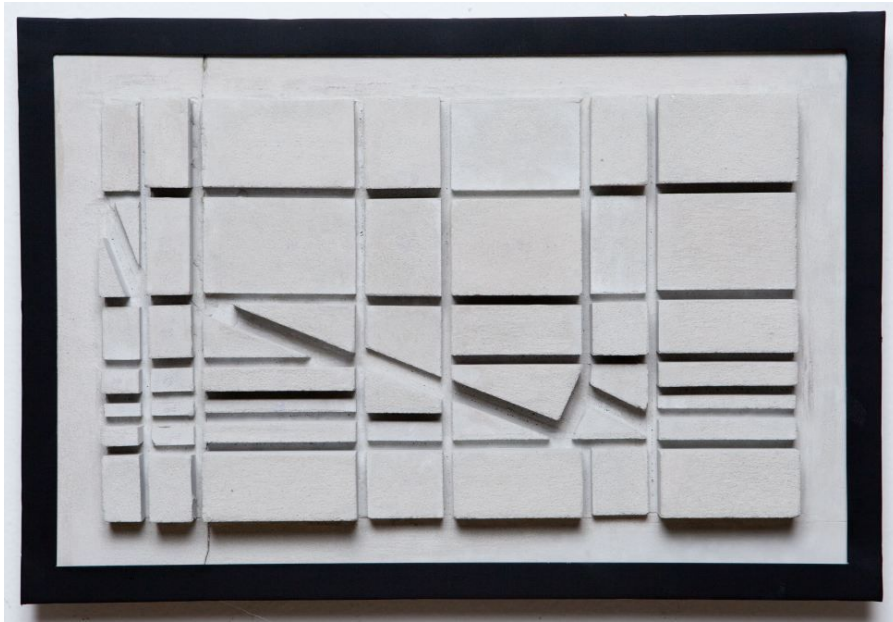
각 입체 작품은 하나의 건물이며 이 모든 조형물이 모여 하나의 길,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 하나가 또 다른 길을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즉 백색 LED가 각 건물의 길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인지하는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작 본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길 속에 길을 넣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표현하였고, 입체화함으로써 그 복잡함을 배가시켰다. 【작품3】의 입체는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묻어날 수 있는 입체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눈여겨볼 것은 본 작품은 조명뿐만 아니라 철 구조물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작품1】에서 느낄 수 있었던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형태에서 선의 중첩된 현상을 철 구조물로 나타냄으로써, 앙상한 뼈대만 남은 도시를 형상화하였다. 철과 백색 LED는 절묘하게 어우러져 도시가 갖고 있는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을 극대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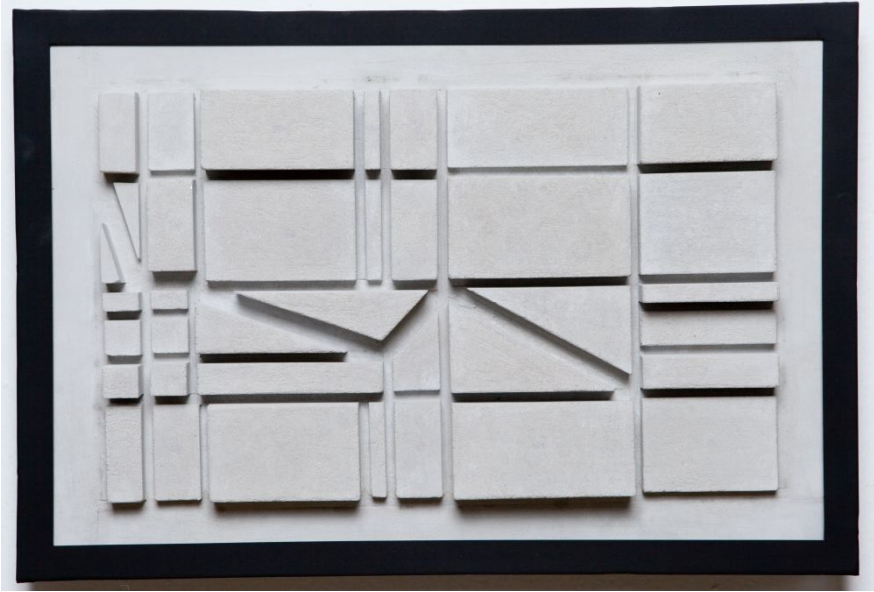
3. 작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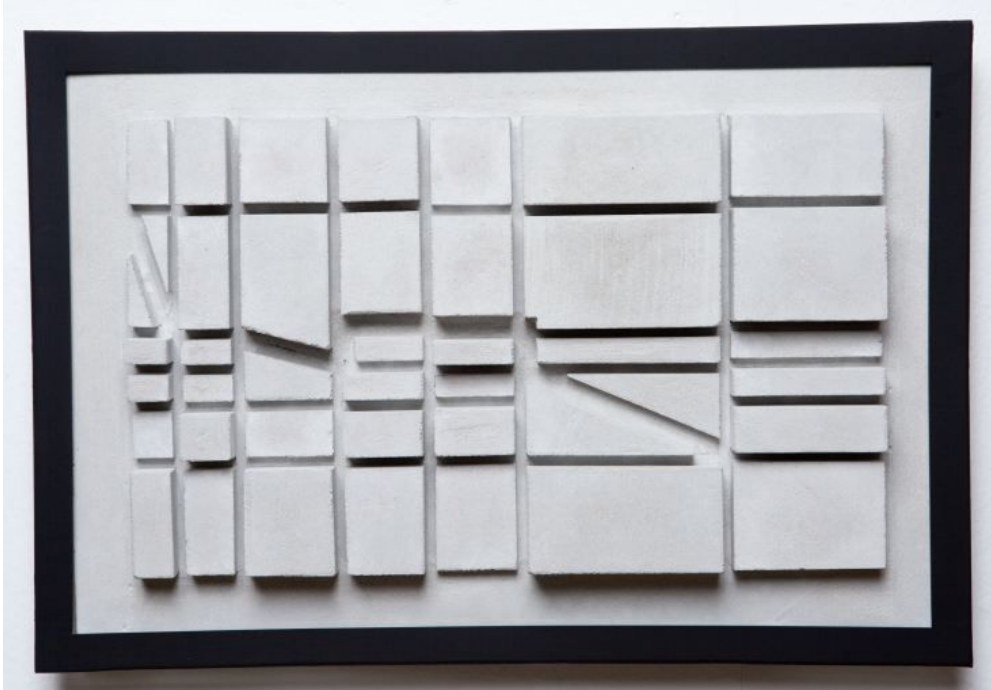


【작품 1】 반복되지 않는 반복



【작품 1】 반복되지 않는 반복 (부분1)





【작품 1】 반복되지 않는 반복 (부분2)

【작품 1】 반복되지 않는 반복

연도 : 2013

크기 : 3000 x 300 x 40(mm)

재료 : 시멘트

제작방법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잘 이동하는 경로를 탐색한다. 경우의 수가 1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각 교차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이다. 이동하는 길에 차이가 나타나는 교차로 지점을 중심으로 좌표를 그려 이동 경로를 나타낸다.

음각 형식으로 우드락이나 스티로폼 같은 부드러운 재료로 거꾸집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물과 1:3비율로 혼합하여 거꾸집에 부어 넣은 후 굳힌다. 열 칼로 거꾸집을 제거한 후 표면을 사포로 정리하고 무광 코팅제로 마감을 한다.

작품 설명

(부분1) 작품은 보문로 35길 - 삼선교로 23길 - 성북 경찰서 앞 사거리 - 보문로 34길 - 정문에 이르는 방향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부분2) 작품은 보문로 35길 - 보문로 34길 - 동소문로 18길 - 동소문로 20길 - 보문로 34길을 타고 이동하는 길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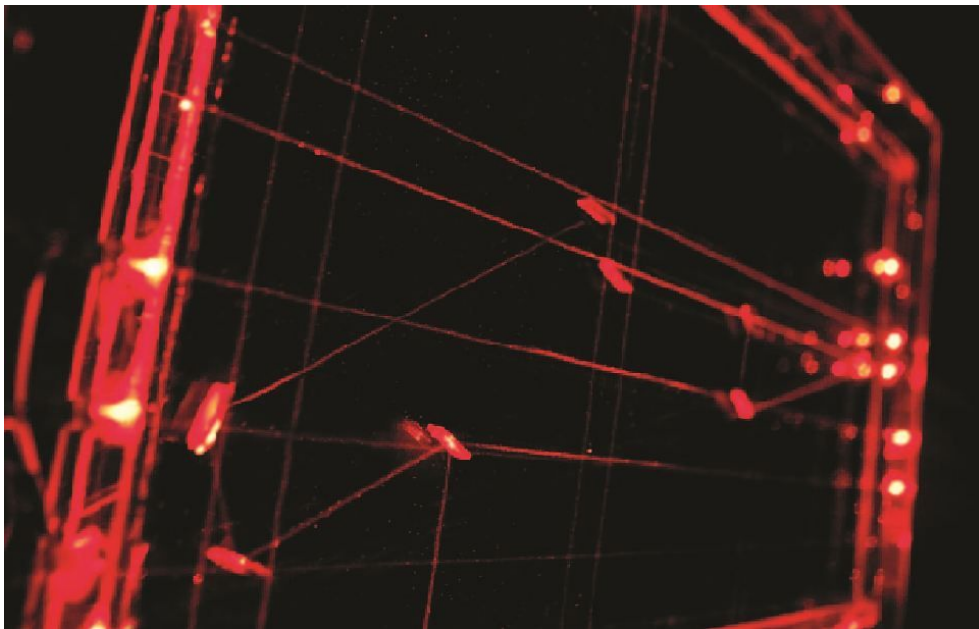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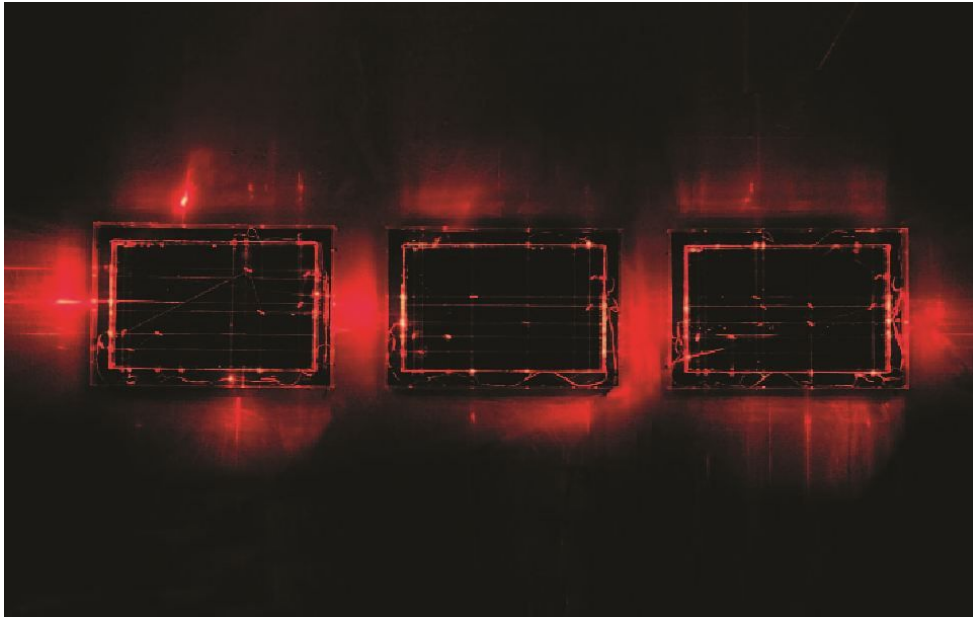
이 길은 같은 목적으로서 길이지만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길의 차

이는 서로 다른 장소에 따른 차이다.

부분 1에 나타난 길은 본인이 자주 다니던 길이며 가장 짧다고 생각하는 길이다. 본인이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이며 부분 2는 짧은 거리보다 그날의 다른 목적과 경험을 위해 움직인 길이다.

목적은 같지만 다른 차이를 발생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꺾이는 교차점의 변화이다. 그 변화는 서로가 다른 장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다.

작품의 형태는 부조 형식을 띄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지도를 단순화한 형태로, 우리가 이동한 길의 정보를 함축하여 놓은 결과물이다. 현대 도시의 건물들이 규격화·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본질적인 것에만 충실하게 되는 추세를 작품에 녹여냄으로써 도시의 특징을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2】 달빛 없는 길

【작품 2】 달빛 없는 길

연도 : 2013년

크기 : 3000x500x50(mm), 2013

재료 : 아크릴, 레이저모듈, 물

제작 방법

작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를 선택 레이저 모듈을 내가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 설치하고 교차로가 되는 지점에 거울을 설치한다. 내가 지도상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거울의 각을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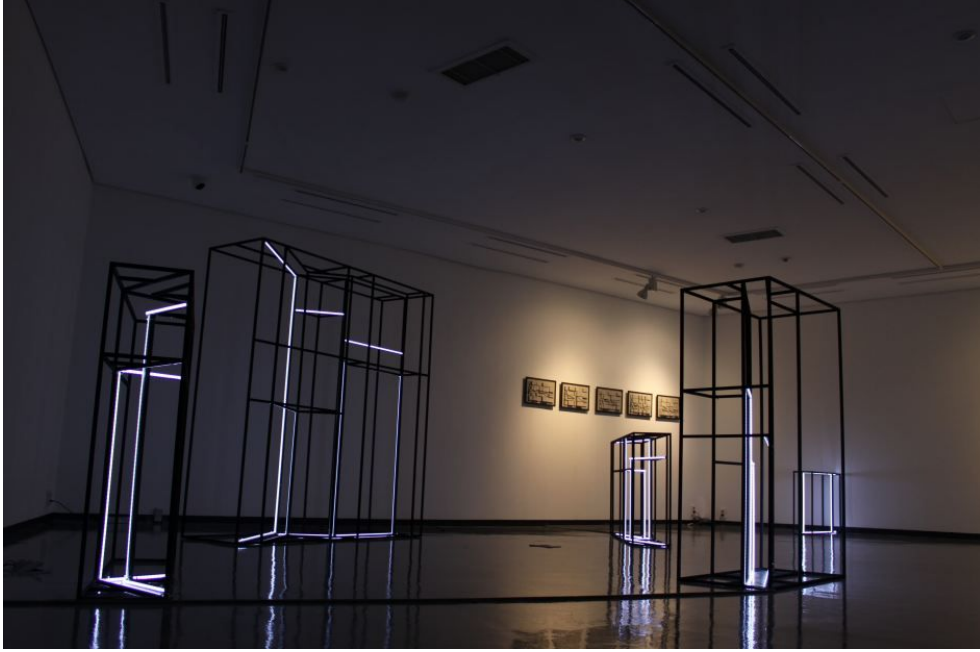
작품설명

작품을 구성하는 빛은 깜깜한 밤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을 상징화 하였다. 도시의 가로등이 길을 밝히고 그 길을 우리가 지나다닌다. 어두운 밤 도시를 밝혀주는 조명은 도시가 갖는 매력이다.

레이저 빛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 현대인들은 규칙적인 패턴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딱딱하고 절제된 모습을 상징화 하고자 하였다.

길은 여러 지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만들어 낸다.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각각의 장소의 차이이다. 이러한 장소들이 모여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낸다. 작품에 나타난 흑색 배경은 깜깜한 밤을 상징 하였고 달빛조차 없는 도시의 길을 상징화 하였다. 위성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밤 길은 서로의 다른 공간을 연결해주는 실과 같은 느낌이다.

빨간색 선의 형태를 띄고 있는 조명은 시선을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배열 방식에 따라 공간을 확대 시킬 수 있고, 실내에서는 운동의 방향을 제시 하였다.



【작품 3】 잠들지 않는 도시



【작품 3】 잠들지않는도시, (부분1)



【작품 3】 잠들지않는도시, (부분2)

【작품 3】 잠들지 않는 도시

연도 : 2013년

크기 : 3000 x 6000 x 2000(mm)

재료 : 철, LED

제작 방법

내가 다녔던 길을 한 방향을 정해서 건물의 형태를 단순화 시킨다. 15mm 철 각관으로 단순화 시킨 형태의 건물 모습으로 용접을 하고 내가 다녔던 길 라인 중심으로 엘이디 바를 붙여 건물의 중첩된 현상을 만든다.

작품설명

우리 생활에서 밤에도 밝게 빛나는 길을 표현 하였다. 매년 밤늦게 거리를 돌아 다녔지만 우리 현대 사회는 밤에도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 들이였다.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 사회에서 쉼이란 찾아 볼 수 없어 기계처럼 일하는 풍경들을 봤을 때 차가움과 반복의 현상이다.

작품에 백색 LED의 경우, 철과 함께 쓰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유도 하였다. 철은 앙상한 골격의 형태로 무색무취한 도시를 표현하였다. 우리 현대인의 일상 역시 인위적으로 밝혀져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가로 세로선을 적절히 섞어 칸딘스키의 선의 개념을 차용, 도시의 다양한 면을 조명으로서 일부 보여주었다.

부분2에서 면으로서의 조명은 평면형의 광원에서 비치는 빛과 같이 넓은

장소를 균일하게 비춰, 공간을 넓게 지각하게 하고, 시선을 흐름을 만들어 낸다.

시멘트에서 느낄 수 있었던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형태에서 선의 중첩된 현상을 철 구조물로 나타냄으로써, 부분1처럼 양상한 뼈대만 남은 도시를 형상화하였다. 철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명인 백색 LED는 절묘하게 어우러져 도시가 갖고 있는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을 극대화시켰다.

Ⅲ. 결 론

본인은 현대인, 특히 도시인의 삶에 대해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도시인들은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도시라는 공간에 갇혀 획일적인 삶을 살아가며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3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작품으로 표현하였고, 나아가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해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의 행동 패턴은 경험과 장소에 의해 습득한 정보로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자연 속에서의 인간과 달리 도시 속에서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적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함으로써 주거지와 업무지가 분리 되는데 이러한 사회 현상이 패턴화 양식이 더욱 분명해 지게 만든다.

본인은 이동하는 길의 형태를 패턴화와 장소성의 차이를 가지고 서술하였다. 패턴을 구성하게 된 '길'의 한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단순히 길을 소재로 삼았던 것에서 나아가 교차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길'로 작품을 구성할 수 있었다. 패턴화된 길의 차이는 다른 목적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동함으로써 장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의 작품은 패턴을 구성하는 '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빛(조명)'을 비롯하여 시멘트, 철 등 각 작품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연구함으로써 각각의 작품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찰을 해보았다. 더 다양한 소재로 도시의 특성, 획일화와 단순화, 자유의지 부재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연구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은 모두 구조 안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본인이

느꼈던 현대인의 패턴이 도시라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도시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속의 우리 생활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은 앞으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통해 보완하며, 도시에서의 패턴화되는 일상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소재의 활용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물론, 반대개념인 자연에서의 길을 표현함으로써 도시의 패턴화를 대비하여 고찰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표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윤난지 저, 「현대 조각 읽기」, 한길 아트, 2012
- 노베르그 솔츠 저, 김광현 역, 「실존 · 공간 · 건축」, 태림 문화사, 2002
- 메를로 폰티 저,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 데이비드 하비 저, 구동희 · 박영민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 에드워드 랠프 저, 김덕현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프란시스 D. K. 칭, 황연숙 역, 「건축의 형태공간 규범」, 국제, 2000
- 바실리 칸딘스키 저, 차봉의 역, 「점선면 칸딘스키 예술론 II」, 열화당, 2000
- 한석우 저, 「입체조형」, 미진사, 1996,

3. 논문 및 학술지

- 김경재, 「건축구성과 빛의 상관성 및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9

4. 홈페이지 및 기타

- 오피니언 「프롤로그_시멘트 도시 한가롭게 걸어보기」, 미디어스 2013.07.05 16:26:14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73>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line urban 'way' has

Lee, DongHyuk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Arts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e way we commonly recognize is a space among the urban buildings. But, as cognitive concept meaning a space is made by transferring places and used for a material of 'ungone way' of Robert Frost, it includes various concepts including even philosophical concept making metaphorical expression possible. Among them, this researcher reinterpreted and symbolized the way as an image drawn in circulation of practical meaning, transferring to a certain place, and itinerary of metaphorical expression advancing for the purpose. Particularly, various methods and materials were used for expression by focusing on the way of urban space, where this researcher mainly uses so as to deliver internal meaning of urban way to viewers effectively.

And, this research is organized by explanation utilizing the purpose and

expressive method and focusing on this researcher's work manufactured in 2013.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plain the moving way reflected on this work and analyze reasons of mutually different patterns. Lines of this work are the way reorganized by focusing on the point of crossroad and ways of various forms that can be seen by different of places. But, as forms of those ways are repeated, a certain pattern can be confirmed. Thus, while going on humane way in the city, a certain pattern was drawn as a treadwheel runs and furthermore, uniformed aspect of modern society could be seen. This researcher drew horizontal line and vertical line by focusing on crossroad of the street, where this researcher uses the mostly and simplified and schematized the form of the city and moving way so that viewers can sympathize more easily.

This researcher described in following order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introduction of the Chapter 1, purposes and method of research were described under the subject that social phenomenon made by our moving way and different pattern made by different places.

In main body of the Chapter 2, urban way is explained by comparing with natural way for understanding and reasons of simple patterns in urban life and patterns changed by places were examined.

Particularly, this researcher intended to do in-depth analysis on 'the way we select and move' that this researcher intended to show in this work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existential space of C. Norberg Schulz, a

construction theorist and philosopher in Norway, classifies space as 6 things. The way of our selection should be decided by experiences and information and it must be premised by understanding of 'existential space', one of the schulz's classifications. Also, meaning of each work was described by explaining formative background and expressive method of this researcher's works and materials used for each work.

In conclusion of the Chapter 3, this researcher intended to arrange this research, supplement insufficiencies based on this research and seek the direction following works should advance.